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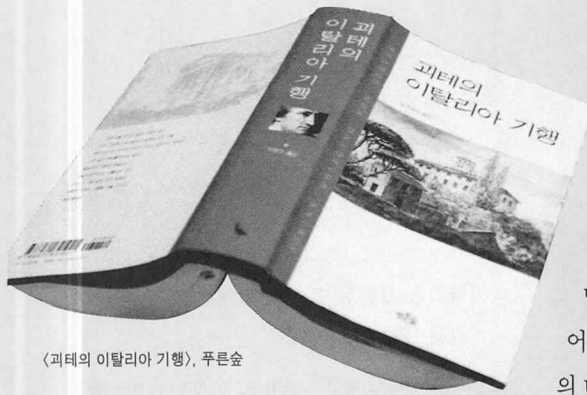
눈에 확 띄는 책만들기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과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의 예

한기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내용과 형식이 적절히 조화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때, 책은 독자를 매혹시킨다.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 푸른숲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신화의 파괴, 이데올로기와 권위의 파괴, 공간과 거리의 파괴를 가져왔다. 달에서 생중계를 하게 되면서 달에 대한 무수한 신화는 사라졌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의 저자 조지 소로스는 조국 헝가리에 수많은 팩스를 무상으로 기부해 헝가리 민주화가 가능했다 한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중간관리층이 몰락하게 됐다. 수많은 '명예퇴직자'를 양산했으며 나아가 가장의 권위는 붕괴됐다.

책에 정확한 정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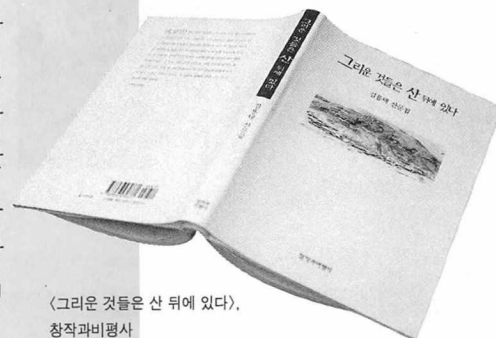
모든 정보를 소비자가 소유하게 돼 '소비자가 왕'인 소비자 주권시대. 왕이라는 기분 좋은 타이틀을 달고 다니는 그들도 수많은 상품이 진열된 대형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판매원의 조언과 도움 없이는 자신의 문제를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외로운 사냥꾼'이 된다. 무한경쟁으로 수많은 상품(책)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는 무한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

작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것이다.

정보가 넘치지만 정보가 부재인 시대. 이 시대에는 아무리 질적으로 우수한 내용을 담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어떤 기업(상품)도 살아남을 수 없다. 상품(책)의 내용 이상으로 형식이 중요할 수도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명 지식인의 추천도 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데 비해 누구라도 책에 대한 정확한 지식(정보+데이터)을 제시하면 독자는 쉽게 달려든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책 만들기는 어떤가? 마케팅에 대한 기본 상식도 갖추지 못한 많은 소규모 출판기업은 대량배본과 대량광고로 한 건 하려는 한탕주의에 여전히 빠져 있다. 규모가 큰 출판사에 근무하는 개인(그들 대부분은 주로 20~30대)은 자기가 맡은 과업에는 충실하지만, 전체 프로세스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출판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 '무엇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 창작과비평사

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마이클 포터(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경고를 무시한 채 여전히 백화점식 경영을 통한 규모의 경제 추구하고 자사 브랜드에 대한 '시너지 신앙'에 빠져 있다. 이런 기업일수록 직원들은 회사의 정체성(identity)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단일한 책 만들기로 일관하게 된다.

도식적인 책 만들기에 빠진 종합출판사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거나 망한다는 징크스가 있다. 위기를 돌파하려면 자기 기업의 핵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물'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파들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개별 상품을 만들 때도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책 만들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외로운 사냥꾼'의 눈에 확 띄는 표적이 될 수 있는 책 만들기를 할 줄 알아야 한다.

내용과 형식이 조화되어야

김용택의 산문집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창작과비평사)는 "소박한 농경 이웃들의 곁고운 마음과 우리의 기억 저편에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을 따뜻한 시선으로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다. 이 책의 출간사실을 처음 대형서점 담당자에게 알렸을 때 그들은 기본 부수만 입고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막상 양장 제본에 커버를 씌운 아담한 장정의 책(건본)을 보여주자 그들은 다량으로 입고시켜 주길 다시 부탁했다.

책의 내용과 형식이 조화를 이뤄 성공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는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푸른숲). 위대한 시인 괴테가 섬세한 눈길로 바라본 이탈리아의 자연과 예술과 삶이라는 내용은 탁월한 형식을 통해서 완성된다. 이 책은 미리 여러 형태의 가제본을 만들어서 실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손에 잡기 좋으면서도 읽기에 부담이 없을 것 같은 변형 4·6 양장본이라는 형식을 먼저 선택한 다음 여기에서 2,700여매나 되는 내용(704면)을 담았다. 이 책은 6만부 이상 판매되는 혁혁한 성과를 올렸으며 도스토예프스키 등 다른 유명 문인들의 여행기 출간을 부추기는 단초를 제공했다.

《출판저널》이 창간 12주년을 맞아 새로운 '형식'을 택했다. 이 형식에 더욱 알찬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원한다. ●